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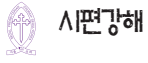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워싼 적들

(시편 83:1-1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원수를 위해 기도하되
저들이 구원 받아 하나
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83편은 아삽의 마지막 시입니다. 아삽은 악한 자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악한 계획을 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같은 음모가 언제 있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6-11절에 언급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위협했습니다. 에돔인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야곱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인은 하갈에 의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갈인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정복 시 요단 이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싸운 족속입니다. 이들과 모압과 암몬은 유대인 영토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밖은 불확실하나 아마도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아멜렉과 연결된 사해 남쪽에 있는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 서쪽으로 지중해안에 있었습니다. 열 번째 나라는 앗수르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유대 영토에 침략해 온 족속이었습니다. 살만에셀의 영도 하에 있는 앗수르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쓰러뜨렸고 BC721년에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시편 83편이 씌어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 역사적으로 반 셈족주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먼저 애굽을 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밟고 건넌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BC721년에 앗수르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고, BC586년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세기에도 핍박을 받았고, 십자군 운동 중에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2차대전시 나치당은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번창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 위에 있었다는 것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은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창 3:15).

2. 과거 승리에 호소

시편 83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유대인들이 자기 처지를 절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1-8절). 그리고 후반부는 그들의 적을 버리시고 멀헤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9-17절).

후반부에서 유대인의 원수를 멀헤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성도는 원수를 용서해야 하며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윤리는 기독교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사사기 6-8장에는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이긴 기록이 있고, 사사기 4-5장에는 이스라엘이 시스라를 이긴 기록이 있습니다.

시인은 침략자들을 '주의 원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주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해칠 흥계를 품고 꾀기했다는 것입니다(2절). 그들이 이스라엘을 해치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기며 보호하시는 '주의 숨긴 자'까지 말살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땅 위에 남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3-4절). 저들은 마침내 꾀기하여 예로부터 이스라엘에 적대행위를 취해온 열 족속들이 동맹하여 일제히 내습했습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붙잡고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은 지탄받을 무례한 생떼가 아니라 칭찬 받아야 할 구국적 탄원인 것입니다.

3. 적의 파멸을 기도함

하나님의 목장(교회)을 약탈하여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이들에게 아랑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시인의 진정한 소원은 원수의 패망 자체가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16절). 응징은 방법일 뿐이고 목적은 저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을 복수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들이 받을 징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18절). 그러므로 시인의 기도는 단순한 침략자의 패망이 아니라 패망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귀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삽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되 저들이 구원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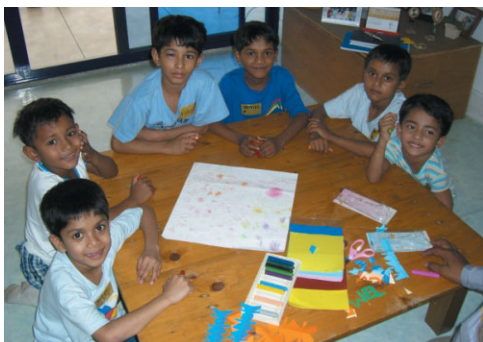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잘 하는도다 서울교회 성도들이여!

-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상심어 -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다른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진 우리교회는 지난 해 전체 헌금의 57%를 밖으로 내보낸 역사를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이 일에 몰입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한 **공동 신앙선언**이 발표되자(순례자 838호) 우리교회는 이를 전국교회에 배포하여 한국교회의 신앙적 일치를 촉진하기 위해 **10,000부를 책으로 출판**하는 일에 한기총을 도왔다.



▲방글라데시 아사 호스텔에서 공부 중인 어린이들

또한 불란서 **리용 개혁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비로 미화 60,000달러**를 보내어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에 강타를 당하여 휘청거리는 불란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기독교 농장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진 선교사의 교도소 설립을 위한 **초동 자금 미화 44,000달러**를 보내어 검은 대륙에 복음의 빛을 비춘다.(말라위 기독교 교도소 기사는 본지 3면을 참조)

방글라데시에서 아사 호스텔을 운영하며 버려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남혜 선교사가 이번에 **아사(소망) 공부방**을 개설하여 **문맹자에게 글을 가르치고 여성교회를 세우기로 해, 미화 1,735달러**를 보내기로 하고 **운영을 위해 매월 400 달러**씩을 보낸다.

국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하여 매월 **1,460만원**씩, 연 **1억 7,52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군선교연합회, 자매부대 교회 등 기관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이경현 군선교사가 섬기는 **특공연대 새생명 교회당 증개축**을 도울

준비를 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의정부 안디옥 열방교회의 구정특별수련회 경비의 일부**를 도왔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한푼의 남용이나 오용됨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쏟아 부는 우리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국내외에 모델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알려지고 있다.

금요 기도회 시간 변경

2월15일(금)부터 밤 8시30분 10시부터 - 환자를 위한 특별기도회로

금요 기도회 시간이 변경된다. 금요기도회는 현재 밤 9시부터 찬양을 시작으로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를 당겨서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 된다.

특히 10시부터 30분간 전 교역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환자들과 함께 도서실(102호)에서 환자를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된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여 교회와 국가 가정 특히 환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데 힘쓰도록 기도한다.

사랑부 겨울성경학교

10일(주) 오전 10시 - 102호실

사랑부(부장 서춘식 집사) 겨울성경학교가 오늘 오전 10시 사랑부가 집회실로 사용하고 있는 102호실에서 열린다. 사랑부는 우리교회가 소외된 장애우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서로 현재 70여명의 장애우들이 출석하여 말씀을 배우고 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친구의 생명을 품는 사랑부'를 주제로 열리며 운영국 목사와 주원순 선생(사랑부 지도이) 강사로 수고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

전도폭발훈련

제 1기생 모집

서울교회 전도위원회에서는 관계전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도폭발 훈련을 3월 4일(화)에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13주에 걸쳐 실시한다.

전도에 관심 있으신 성도의 참여를 바라며, 특히 이전에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한다.

문의는 전도위원회를 지도하는 장석남 목사(010-7273-6352)에게 하면 된다.

어린이 찬양예배

보조교사를 찾습니다

주일저녁 어린이 찬양예배에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봉사(종이접기, 미술, 레크레이션, 영어 등)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맘껏 발휘하여 귀한 성도님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어린이 찬양예배는 주일저녁 5시~6시까지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고 있다.

문의는 지도목사인 서명철 목사(016-329-4054)에게 하면 된다.

2008년 전반기 장학금 수여

- 오늘 찬양예배 시간, 총 52명 선발 -

우리교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윤찬오 장로)는 2008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총 52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총 6천1백4십만8천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들은 반드시 오늘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도록 한다. 도서실이나 방송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별도로 지급된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 이 나라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브리스길라 장학생>-신학생 3명-
김종일 최요섭 노재균

<송암장학생>-찬양대 반주자/솔리스트 13명-

이경민 신유경 정동호 주현민 권소라 박혜진 엄지원 김남욱 김요한 박승기 박성수 구슬희 이영희

<대학생-18명>

김명선 이민정 정태완 고요한 차신영 남혜원 이내영 김은진 임정원 강해주 은예솔 정화란 정진환 허나운 최선애 Bhandari Binayak 신민정 박한샘

<고등부-3명>

이성화 심승 성기방

<선교사/교역자/직원 자녀 -10명>

이건우 이관우 이한나 이혜나 서민애 김영수 임진호 임지선 정휘재 최혜진

<디아스포라부-5명>

주영철 채정석 김영복 박복실 김철훈

이상 총 52명

2월6일(수)부터 사순절 시작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절기인 사순절은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생활을 한다.

지난 2월6일(수)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지

키며 올해 부활절인 3월23일까지가 사순절이다.

사순절의 교회력 색상은 보라색이다.

만민에게 전도 - 김용진 선교사

버려진 아프리카의 친구

‘사랑의 곡식’ 운동 - 아프리카 교도소의 희망 떠올라

아프리카 최빈국의 하나인 말라위에서 교도선교(수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역)를 하고 있는 김용진 선교사를 어렵게 전화로 인터뷰했다.

- 기독교교도소의 설립에 뜻을 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범죄자들을 건전한 준법시민으로 만들어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일은 복음을 받은 교회의 전문영역이지 결코 정부나 기업이 공권력이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당국에 일임하고 보조적인 역할만 해왔습니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운동은 교회가 범죄문제 해결의 일선에 나서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법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한국사회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교도소는 재소자들에게 성경과 찬양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행기간 동안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삶을 연습시키는 의인교습소가 되어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 말라위에는 어떤 계기로 가게 되었습니까?

10평 남짓한 방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5시간 이상 갇혀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매달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의 동정심도 자극할 힘이 없습니다. 어느 구호기관도 극빈국의 교도소를 후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소자들은 사람들이 증오하는 대상들이라 이들을 도우면 세간의 비난과 함께 후원자가 끊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외면된 생명들을 위해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2002년쯤 깨달았습니다.



수행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본받는 의인 교습소가 되어야

점은 대륙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 말라위교도소에서 실천하는 ‘사랑의 곡식’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곡식’ 프로그램(Crops of Love Ministries, CLM)은 국제교도선교회(PFI)와 연계해서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극빈국 교도소들을 성경적인 원칙으로 변화시키려는 운동입니다. 일차 대상국인 말라위 정부당국은 약 250만 평에 달하는 농지와 1500여 명의 재소자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CLM은 한국 교회와 성도, 기업과 정부당국, 국제구호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가장 효율적인 기독교 농장교도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 계획입니다.

사랑의 곡식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은 약 250만 평의 농토와 대규모로 가동되는 양계, 양돈장과 부설사료공장 등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물의 절반은 교정당

국 내에서 재소자의 급식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외부로 보내져서 병원의 극빈환자, 고아원, 장애우 수용소, 난민촌 등 사회의 약자계층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던 삶을 살던 재소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돕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도소 선교는 돈과 떡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따라 남을 위해 사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식의 교육과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전력투구하는 말라위 교도선교의 비전은?

말라위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선도 작업이고 이 프로그램의 성공여부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프리카의 30여 개 나라에 확산될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주는 자가 되도록 힘을 보태주어서 진정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리: 순례자 편집부

김용진 선교사는 지난 1월21일, 말라위 교정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월1일부터 기독교 농장 교도소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김 선교사는 말라위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농장교도소는 반드시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과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의 1/2은 외부로 보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교회는 김 선교사가 더욱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에 필요한 초등자금으로 미화 44,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만민에게 전도 - 박진아 선교사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면서



박진아 선교사(캄보디아)

이종운 위임목사님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 잘 도착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대했던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

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 예벤 에셀의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프놈펜 시내에서 혼자 살만한 적당한 크기의 다세대 주택 같은 원룸형의 집을 빌렸습니다. 마침 언어훈련을 받을 어학원과 대학교가 멀지 않은 곳이라서 위치가 적당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지인에게서 직접 배우는 언어훈련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현지 선교사님들도 그 빠른 변화와 속도감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라면 캄보디아의 발전은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형편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한편으로는 도시로서 발전하며 변화하려는 캄보디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를 느낍니다.

저는 일단 언어훈련을 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탐방하고 가장 효율적인 어린이 사역중심의 선교적 접근과 전략을 리서치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현지의 문화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언어를 잘 습득하여 현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랑하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사랑하는 서울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빌 때까지 건강하시고 더욱 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천국시민 양성 - 청년 2부 수련회를 마치고

born again

윤효진 (청년2부 81포레)

지난 25일 청년 2부는 <bom again>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강사로 나서신 이태훈 목사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던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항상 무언가를 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혼자 감당치 못할 고민과 걱정애 둘러싸여,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제 어리석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온 지 3개월 남짓 되어가는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bom again",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bom again, 그것은 "오직",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는 기쁨을 알고, 용서가 이룩하는 거룩한 화목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축복의 노래" 라는 제목을 가진 각기 다른 세 개의 노래로 드러진다. 음악사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우리들이 받기 원하는 축복을 주제로 한 성곡을 작곡하였다.

같은 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음악으로 표현한 축복의 의미는 주께서 주시는 축복만큼이나 다양하다. 오늘은 Mozart 그리고 Weber 가 작곡한 곡으로 드러진다. 연주는 교회음악만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단체인 Musica Anima 의 단원들이며 이분들의 대부분은 우리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다. 소프라노 이유주, 알토 김정희, 테너 김정훈, 베이스 정동호 선생 등이며 반주는 백송희 선생(가브리엘 반주자)이 맡는다.

우리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우리의 삶속에서 표출하기 위해 예배시간 중에 행해지는 교회내 각종 모임 또는 행사 시 그 모임이나 행사를 시작할 때 예배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2008농어촌100교회운동지원현황 (다음주 계속)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구좌(개)
경안노회	금곡교회	조정원전도사	김영주 박찬성 김영호 박정수 송인권 유혁근	1 0.5
	두산교회	박미혜 전도사	원용규 이강진 권장철 노중환	1
	광은교회	민만기 목사	이남성 홍성주 하영수 정동학 김승배 강승웅 전수자	1 0.5
	주영교회	하재민 목사	임광호 김재중 홍순복 임상현 김정애	1 2
	안흥교회	김성은 목사	김종자 홍승전 노병근 홍성모 12교구27.8다락방	1
	빙하제일교회	최근상 목사	은기장 이관규 송재현	1
	감은교회	고창현 전도사	김광민 이희민 오형철	1
	울곡교회	우성화 전도사	조순엽 김병호 이영기 진 돈	0.5 1
	부남명성교회	신덕만 목사	김상철 김영주3 박경정 김복녀 노문환	0.5 1 1
	팔성교회	박노갑 목사	신용식 오정수 이조흔 장인원 김대호 한광마 이종울 고석규	1 0.5
	송일교회	정병욱 목사	임충식 신주현	1
	물한동교회	강화심 목사	김권집 고아라 노승성 황병석	1
	이승천교회	이봉우 목사	김철호 김경태 안홍희 한홍연 박순옥 곽숙	1
	원호평강교회	전병오 목사	임광우 이순형 최양진	1
원천교회	김도환목사	이호 최공천	1	
강원노회	월송교회	남금준 전도사	전광영 김광태 김형상 오유식 김현수 김훈 박희석 최순애	1 4
	화방교회	김원일 목사	원명희	1
	작실교회	허만승 목사	탁경준 4-6다락방 나미용 김동수 홍석현 1-22다락방 박정선 이희국	0.5 1
	고한남부교회	방은근 전도사	이동만 이종욱 류충기	0.5
			5-5다락방 최향봉 김혜배 이건모 김해영 김명옥 민혜정 이영자 이재봉	0.5 1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3일(수), 14일(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통일학교에서 아침 성경공부를 강의한다. 13일(수) 육해공군 해병대 군중목사 수련회 특강을 한다. 15일(금) 강원노회, 강원동노회 장로 연합수련회 특강을 한다.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 선교회(2.10)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3.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농어촌 미자립 교회 100교회 운동후원과 비전2020운동 후원자가 많이 생기게 하소서.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